

01 교회소식

생명의 말씀을 만나 행복해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영적 갈급함을 해결받고 위로부터 충만함을 얻게 된 엘살바도르의 엘비아 성도와 몰도바의 갈리나 성도 간증.

02 생명의 말씀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영적인 사랑이 있으므로 설령 어린아이라도 배려해 준다.

03 기획특집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2)

'이스라엘 선교 12주년 기념 특집'으로 2004년 만민 성지순례 현장의 감동을 되새기며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04 간증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변했네~”

질병의 고통과 자신의 처지에 살 소망을 잃고 자살을 결심했으나 전도되어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권석중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876호 2019년 2월 17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GCN / WORLDWIDE COVERAGE / Latin America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법을 알았습니다

엘비아 마리아 성도 (43세, 엘살바도르 손소나떼만민교회)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 없었기에 학창시절에는 늘 교회에 다시 가고 싶은 소망이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의 삶은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삶이 아니다”라는 마음의 음성을 듣게 된 뒤,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라고 질문하면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지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갈급해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목회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2월, 케이블TV 채널 17번을 켜놓고 집안일을 하던 중 들려오는 설교 말씀에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에서 찾아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충격 그 자체였지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제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던 목회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는 지인들과 모여 기도하며, 십계명 말씀을 다운받아 함께 들곤 했습니다. 그가 르침은 실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더욱 놀라웠지요. 인터넷으로 만민 지교회를 찾은 결과, 알파 비스타만민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엘살바도르 만민 지교회 목사님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믿음의 분량』, 『십자가의 도』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리가 멀어 거주지인 손소나떼에 기도원을 열게 되었지요. 그 뒤

당시 '믿음'에 관한 설교가 끝나 가던 터라 화면에 나오는 설교자의 성함과 연락처 정보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 이재록

손소나떼 만민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10월 초부터 폭우가 계속돼 많은 가옥이 침수되고 사상자가 발생하였지만 저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킴이를 받았지요. 낙뢰를 비롯한 큰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으나 녹음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으니 21일(주일)에는 이슬비만 살짝 뿌렸고, 22일(월)에는 엘살바도르 전역에 내렸던 폭우 경보와 주의보가 해제되었습니다. 당회장님은 저희들에게 많은 영적 자산을 가르쳐 주시고, 만민중앙교회는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입니다. 언젠가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하여 만민의 성도님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이미 거룩함을 입었으니 더 이상 노력하며 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화내고 질투하는 제 자신을 보며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라는 의구심이 들어 괴로웠습니다.

더구나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면 형통할 것이라 배웠는데 남편은 사명 감당하면서도 괴로우면 술을 마셨고, 저 또한 마음의 변화도 없고 가정의 문제도 많아 힘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헤쳐 나갈 수 없는 막다른 벽 앞에서 “이 지옥 같은 삶에서 구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014년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는데 한 청년이 다가와 “왜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셔야 했고, 가시면류관을 쓰셨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미 교회에 다니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나요?”라고 대답했지요.

그는 이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주며, 한국 만민중앙교회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솔깃해졌고, 인터넷에서 이재록 목사님에 대해 찾던 중 자서전 『나의 삶 나의 신앙』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단숨에 읽었지요. 그 뒤 저는 그 청년이 다니는 몰도바만민교회에 나가 각종 예배와 모임,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여 신앙의 첫사랑을 되찾고 진리의 갈급함이 채워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삶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했지요. 이전에는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앞에 단 2분도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 나가니 어느새 기도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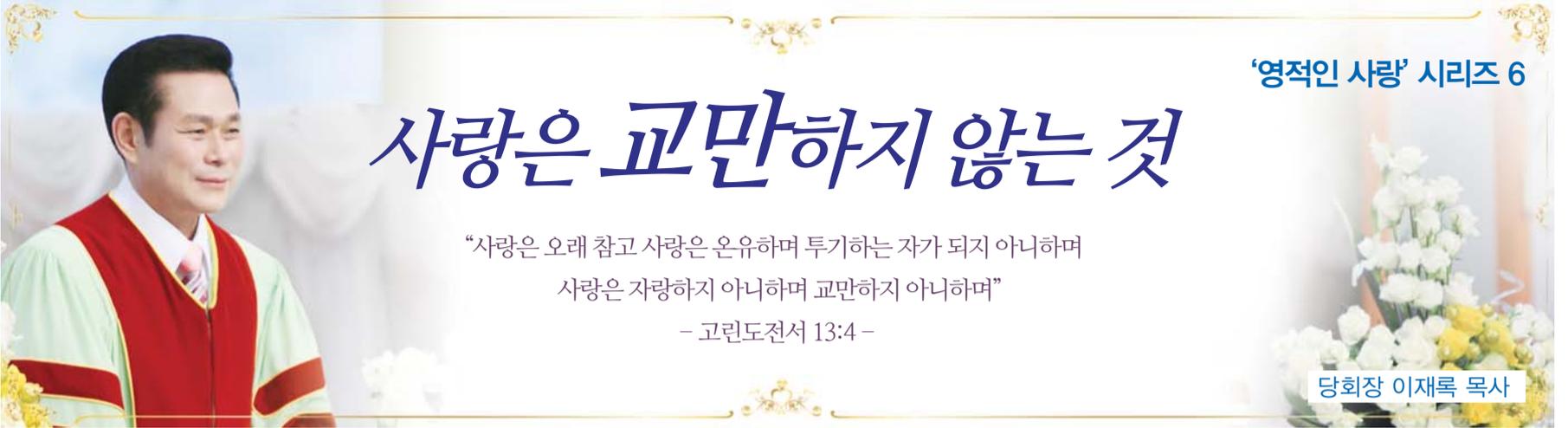
왜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갈리나 블라마잘라 성도 (45세, 몰도바만민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죄악을 벗어버리는 마음의 할례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위해 노력해 가니 점점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가끔은 죄를 버리라는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이 찢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어찌하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모든 삶을 다해 사역하시는 귀한 당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영적인 사랑' 시리즈 6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 고린도전서 13:4 -

당회장 이재록 목사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남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므로 쉽게 교만에 빠집니다. 자기가 잘나서 일이 술술 풀리고 잘되는 줄로 착각하여 우쭐대거나 나태해지기 쉽지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자세히 살펴 보면 하나님께서 특히 싫어하시는 악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1. 교만한 사람의 특징

'교만'이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 내가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제일로 여깁니다. 매사에 상대를 무시하고 앞잡아보며 가르치려 하지요.

일반적으로 교만한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상대에게 나타나지만, 심한 경우에는 자신을 가르쳐 주고 이끌어 준 사람이나 질서상 윗사람까지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뭘 모르고 저렇게 말씀하시네"라고 불평하거나 "그 정도는 나도 아는데..." 하며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과 대화를 하다보면 곧잘 변론으로 이어져 다툼이 생기고, 심하면 싸움으로 번지기까지 합니다.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으며,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양심이 다르고 지식도 다릅니다. 이는 보고 들으며 배우고 체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지식 중에는 오류도 많고, 스스로 엉뚱하게 입력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굳어지면 자신만의 '의'와 '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의'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굳어지면서 '틀'이 됩니다. 성격이 틀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의 틀이 되기도 하지요. '틀'은 사람의 몸으로 치면 골격과 같아서 자기만의 모습을 만들 뿐 아니라 일단 형성되면 깨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대개 자기 의와 틀에서 나옵니다.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은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해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부자가 웃기만 여며도 웃을 자랑한다 하며, 누가 어려운 문자만 써도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지요. 그래서 교만하면 자신이 틀려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주장하다가 변론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설령 자신의 주장이 옳고 상대가 틀려도 변론하지 않습니다. 백 퍼센트의 확신이 있다 해도 만에 하나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지요. 굳이 상대를 누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영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상대가 자신보다 가난하든, 배움이 적든, 힘이 약하든, 진심으로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설령 어린아이라 해도 그 마음을 배려해 줍니다. 특히 주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육적인 교만과 영적인 교만

대체로 눈에 띄게 자신을 뽐내고, 남을 무시하는 등 겉으로 드러나는 교만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육적인 교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리를 알면 육적인 교만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버려집니다.

반면 영적인 교만은 스스로 발견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버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직분과 사명을 받아 위치가 높아지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아는 말씀을 마음에 이룬 것처럼 착각합니다. 상대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자신은 진리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높아져 꼭 지켜야 할 절차를 자신의 유익을 좇아 무시하면서도 '나는 이만한 위치에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높아진 마음을 영적인 교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또한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지요. 진리는 오직 좋은 것만 보고 듣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이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라" 했습니다. 과연 나는 상대의 잘못을 보았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앞서는지, 아니면 감싸주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는지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얼마나 겸손과 사랑을 이루었는지 알 수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성결하기 전에는 교만해질 수 있는 속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죄성을 뿌리째 뽑아 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같은 기도로 온전히 뽑아 버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시 교만한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잡초를 잘라내도 뿌리가 남아 있으면 다시 싹이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항상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생명 다해 섬기는 최고의 사랑을 이루기까지 변함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3. 자신을 믿고 사는 교만한 사람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고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 정원'도 그의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과 업적을 스스로 이루었다고 자랑하며 자신의 동상을 세워 신처럼 숭배하게 했습니다(단 4:30).

하나님께서서는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세상 주관자가 누구인지 깨우쳐 주십니다(단 4:31~32). 결국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광야에서 짐승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지요. 7년 후에야 정신이 돌아온 그는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단 4:37).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요찬양예배 [빛과소금]	11:00 PM
주요찬양예배 [중·고등부]	11:00 PM
주요찬양예배 [아동부]	7:00 PM
다시예배	8:00 PM
새벽예배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수 없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날 과학 기술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태풍이나 지진 등 갑작스런 천재지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지요.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갖가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믿어 자신의 생각과 경험, 지식 등을 의지하지요. 끝내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것

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자신과 세상을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사람 편에서 교만하여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원수 마귀 사단의 훼방에서 지킴 받을 수 없고, 형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씀한 대로 실패나 멸망을 부르는 것은 바로 자신의 교만함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은 피조물로서 모두 동등한 존재입니다. 또한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다 해도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일 뿐이며, 반드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했으니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순종함으로 장차 천국에서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선교 12주년 기념 특집 2 >>>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2)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4:12~14)

2000여 년 전,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성장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갈릴리 호수의 주변 마을인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여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다.

가버나움 회당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시는 등 많은 활동을 하셨던 곳이다(위 사진).

***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방**

이사야 9장 1~2절을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니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 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지방은 앗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 당한 이후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이 다스리지 못했던 곳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통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베풀며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다.



특히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는 온 국토로 물을 공급하는 이스라엘의 젖줄이다. 지금은 시리아 땅에 위치한 헬몬산 남쪽 기슭에서 발원한 지하수가 남쪽으로 흘러 내려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더 나아가 요단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갈릴리 호수는 워낙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호수는 히브리어로 ‘긴돌’이라고 부르는 작은 하프 모양의 악기와 유사해서 구약시대에는 ‘긴네렛’(민 34:11 ; 수 13:27, 신약시대에는 ‘게네사렛’(눅 5:1)이라고 했다. 또한 헤롯 안디바스가 서기 17년에 갈릴리 지역에 디베라라는 큰 도시를 건설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이 호수가 갈릴리, 게네사렛, 디베라(요 6:1, 21:1)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한다.

*** 가버나움과 벳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셨고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셨으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낫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오그라든 손을 펴게 하시는 등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한편, 벳새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소경의 치유 등을 베푸셨다고 알려져 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않으므로 엄히 책망하신 기록이 나온다. 지금은 가버나움이나 벳새다가 폐허가 된 것을 보면서 당시 이 마을들을 책망하시던 예수님의 탄식소리가 곳곳에서 배어 나오는 듯했다.



*** 갈릴리 호수 선상에서**

‘2004 성지순례’ 기간 중에 기억에 남는 또 하나의 중요한 순간은 갈릴리 호수 선상에서의 시간이었다.



그날 갈릴리 호수는 평소와 달리 잔잔하면서도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다. 또한 선명하게 볼 수 없는 호숫가 사면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순례단은 갈릴리 선상에서 찬양과 기도, 묵상으로 주 안에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많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물처럼 맑히며 파사로운 평안으로 감싸 주셨다.

*** 성지순례 중 첫 주일예배**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뿐 아니라 권능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 그래서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마음 편히 잠수시지도 못하며 잠시 쉴 틈도 없으셨다.

하나님께서 성지순례 중 첫 주일예배를 앞두고 기도할 때 예수님 사역 당시의 사건을 마치 영화를 보듯이 환상으로 보여 주셨다. 일례로 제자들의 만형 격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가득하여 늘 자신이 앞장서서 길을 걷곤 했다. 어느 날, 길을 걷던 베드로는 자신의 겹옷을 벗어 돌 위를 닦은 후 예수님께서 잠시 앉아 쉬실 수 있게 하였다. 그러자 요한은 오래 걸으신 예수님의 피곤하신 발과 낡은 샌들을 자기의 옷으로 닦아 드렸다.

순례단은 갈릴리 해변에 있는 숙소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랑과 감동의 순간을 생생히 느끼며 주일예배를 마친 후, 이스라엘 골짜기에 위치한 변화산을 향해 출발했다.



“자살 직전에 만난 하나님, 몸과 마음까지 치료해 주셨습니다!”

권석중 집사 (68세, 1대대 9교구)

저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몸과 마음의 고통을 잊고자 술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양쪽 팔이 저리고 손이 차가웠으며 엄지와 검지 끝에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양쪽 무릎은 연골이 파열돼 왼쪽 무릎을 먼저 수술을 받았으나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도 없었지요.

또한 전립선암 수술 후유증으로 5~10분 간격으로 소변을 봐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불면증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 잠을 자는 것도 쉽지 않았지요. 이로 인해 많은 종류의 약을 복용하다 보니 늘 속도 편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녀도 없으니 어디 하나 의지할 데도 없었고 나이는 일흔을 향해 갔습니다.

이러한 저의 처지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살 소망이 없었기에 저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 때문에 고생만 하는 아내를 친정집으로 돌려보내고, 차를 팔아서 식당과 술집의 외상값을 모두 갚았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온갖 질병을 치료받고

2016년 3월 11일 저녁, 저는 술을 마시고 자살할 계획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마침 길에서 동네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은 제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만나보세요!”라고 전도하였지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만민중앙교회였지요. 금요철야예배(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이 반짝 반짝 빛났고 기뻐하는 모습에 ‘나도 교회에 다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지요. 새벽에 집에 돌아와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몸도 아주 개운했습니다. 오랜 만에 깊은 잠을 잔 것입니다.

다음 날인 주일에는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았는데 한 달쯤 지나자 제 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통스럽던 양쪽 팔 저림과 손끝 통증이 사라졌고, 양쪽 무릎도

아프지 않아 걷고 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소변을 보던 중 콧물 같은 누런 덩어리가 빠져나온 뒤로는 전립선암 수술 후유증이 깨끗이 치료되어 소변을 정상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불면증도 사라져 늘 피곤하고 무겁던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지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속에 강건한 삶의 행복을 되찾아

이처럼 건강을 회복하니 저는 건축 현장에 나가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는 확신과 기쁨 속에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 또 한 번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돋보기안경을 써도 초점이 맞지 않아 책을 읽을 때 글씨가 흩어져 보이니 잘 읽을 수 없었는데 당회장님의 기도로 시력이 좋아진 것입니다. 지금은 돋보기안경 없이도 작은 글씨의 성경까지 잘 읽을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경에는 구부러지지 않던 왼손 검지가 자유자재로 움직여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웠지요. 우리 교회에 나오기 전에 작업을 하던 중, 타카핀이 박히는 사고로 인해 왼손 검지가 구부러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매주일 당회장님의 설교를 들은 후 환자기도를 믿음으로 받았더니 깨끗이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저는 몸도 마음도 아주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건축 현장에서는 점심식사 후 젊은이들도 낮잠을 자는데 저는 낮잠 대신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니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명된 눈의 시신경이 살아난 아내

더욱 감사한 것은 아내(손승림 집사)도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 삶의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 4월 아내는 저를 따라 처음 교회에 나온 날, 직장을 그만 둘 정도로 극심했던 무릎관절염을 치료받았

습니다. 그 뒤 양쪽 유방에 물혹이 암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치료받기로 결정했지요. 결국 그 믿음대로 유방 물혹이 점점 작아지더니 1년쯤 지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내는 우리 교회에 다니기 전 안과 검진 결과, 오른쪽 눈은 실명된 상태였고 양쪽 눈이 백내장 말기라 수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말을 들은 아내는 며칠 동안 울며 지냈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던 2017년 2월 어느 날, 실명된 오른쪽 눈에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쁜 마음에 2월 25일 안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오른쪽 눈에 빛뿐 아니라 형체가 보이는 것이었지요(아래 표). 백내장 수술도 할 수 있게 되어 양쪽 눈 수술도 받았습니다. 그 뒤 왼쪽 눈의 시력도 좋아져 자유롭게 외출도 하고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축복을 받았지요.

만일 제가 극단적인 생각으로 자살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끔찍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전도되어 귀한 교회를 만나 저와 아내가 구원에 이르며 온갖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꿈도 꿀 수 없었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검사결과표

안압검사						
	NCT1	NCT2	NCT3	검사자	Ta)	각
R	13				i'	
L	13					
ARK						
기도받은 후 ▶ 실명되었던 오른쪽 눈의 시신경이 살아나 교정하지 않은 상태 에서 20cm 거리에 있는 손가락을 셀 수 있을 만큼 보게 됨 (아내 손승림 집사).						
본인안경						
	안경시력	근시력	SPH	CYL	AXIS	F
R						
L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2)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광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충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리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9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광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2909-286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4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3478-9668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휴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447-9217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감탄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창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역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설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248-6521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연B/D ☎031)905-2419, 010-2276-1014